

대중음악 지도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고찰 -기관 및 자격증의 설립을 중심으로-

조승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A Study about necessity for training an educator of popular music -Concentrating o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 and a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Seung-Hyun Cho

Dept of Economics, Korea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대중음악 전문 지도자 양성 필요성에 대한 논문으로 대중음악 전문 교육기관 및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의 설립을 촉구하는 논문이다. 대중음악은 사람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르도 점차적으로 다양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디어에 등장하는 가수들은 퍼포먼스 위주의 보이, 걸 그룹들이 대부분이고 기량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대중음악 전문 지도자 양성체제의 결여에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은 공교육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공교육시스템이 미흡하다. 또한 필드 위주로 인식되는 대중음악은 학문적 필요성의 인식이 부각되지 못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기관 등에서의 전문지도자 양성체제의 결여로 지도자 육성에까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반복되어 순환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방법으로는 전문 교육기관의 확립과 자격증의 설립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의 실행은 현재 정체 단계에 머물러 있는 K-POP발전과 세계화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대중음악계의 안정 및 이미지 격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탄탄한 대중음악 역사 형성 등 수 많은 부분에 기여해서 전반적으로 대중음악계를 성장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관 및 자격증의 설립을 실용음악전공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 방위에 걸친 관련 음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대중음악계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ssesses the necessity of popular music instructor training, and promotes the establishment of popular music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ertification related to applied music education. Popular music has profound influence in popular culture, and is gradually diversifying. However, successful singers predominantly remain mostly boy/girl performance groups lacking musical skills. This study posits the cause of this problem is the absence of popular music instructor training systems, and suggests solutions.

Currently, Korea's popular music lacks a public education system that teaches students effectively. Also, popular music is acknowledged as field-oriented, and isn't recognized for its academic value. Lastly, the lack of professional instructor training system i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creates challenges in fostering effective teachers.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clude establishing dedic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certification programs. Implementing these solutions will provid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in developing globalization for the currently stagnant K-pop industry. In addition, these solutions would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popular music industry, enhancing the image, and developing the popular music industry in general. In conclusion, this study promotes the popular music industry development by influencing and promoting awareness of music professionals, not just applied music students.

Keywords : K-POP, Music, Education, Popular, Leader, Certificate

*Corresponding Author : Seung-Hyun Cho(Korea university)

Tel: +82-10-5454-0942 email: entheos@naver.com

Received October 26, 2016

Revised November 9, 2016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현재 대중음악은 사람들에게 시선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문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슈퍼스타K”로 부터 “K-pop Star”등의 수많은 방송오디션 프로그램의 등장과 “너의 목소리가 보여”, “복면가왕” 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음악방송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주었다. 그에 따라 대중들이 즐기는 음악의 장르에도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크게 대중성을 띄지 못했던 힙합이란 분야도 “Show Me The Money”, “Unpretty Rap Star”등을 통해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했던 가수들이 “무한도전 가요제” 및 여러 방송에 노출됨으로 인해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는 감상의 범위가 한층 확장되었다.

미디어에 이처럼 다양한 음악인들이 많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층과 음악에 열정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수동적 감상자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자로 탈바꿈시켜 주었다. 그런 현상들은 누구든지 원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미디어로부터 주어지는 인식의 각인효과는 자연스럽게 실용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의 증가를 가져왔다. 실제로 실용음악학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을 기준으로 2173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능력 있는 강사들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다.

실용음악은 대부분 학원 등의 사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수준 높은 강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입시뿐만이 아니라 데뷔를 준비하는 가수들 속에서도 발생한다. 오랜 기간 소속사에서의 연습생 생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앞에 선 가수들의 모습을 보면,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 보다는 퍼포먼스 위주의 보이, 걸 그룹 등 댄스그룹이 주류를 이룬다. 물론 이 중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보컬리스트들도 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음악적인 소양 및 실력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족함이 많다. 때문에 K-POP 산업을 포함한 대중음악계는 교육으로 길러낸 가수보다는 천재나 영재와 같이 재능을 이미 지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다. 이는 보컬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원인을 대중음악 전문지도자의 부재에서 찾고 문제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전문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연구해 보았다.

1.2 대중음악의 정의

대중음악 전문지도자 양성에 앞서서 과연 대중음악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의미하는 대중음악의 사전적 정의는 말 그대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이다. 조금 더 깊숙이 보자면 ‘대중’ 즉, 보통사람이 향유하는 음악이자 넓은 호소력을 갖는 음악으로 순수음악이나 예술음악(art music)처럼 훈련을 통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닌 특별한 음악적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이다. 요컨대 대중음악은 매스미디어 등에 의해서 유통되어 시공간의 구애 없이 들을 수 있는 대중을 위한 노래이다.[2] 이러한 대중음악은 문화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종류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되어짐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부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지니고, 활성화 되어 있는 친숙한 문화요소인 대중음악은 그 특성과 성격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1.3 대중음악교육의 현실

현재 어떠한 점들이 대중음악 분야의 문제점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공교육의 부재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중음악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중심체제이다. 사실상 공교육의 실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29개의 예술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그중에서 9개의 예술 고등학교만이 실용음악과정이 존재했고 이외의 학교에는 없었다.[3] 그나마 있는 학교의 경우에도 커리큘럼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실용음악에서 배워야하는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 뿐 아니라 대중음악분야의 직접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무대 수업이

라든지 미디, 싱어송라이팅 및 즉흥연주 등에 관한 수업이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공교육의 부재로 교육의 입지가 불확실하며 보편적인 교육체제가 잡혀있지 않다. 또한 대중음악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대중음악이란 ‘특별한 음악적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대중을 위한 노래’ 즉, 대중의 관심과 개성, 그리고 취향이 어떠한 분야보다도 존중되는 분야라는 특성으로 인해 학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심도 있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고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전문지도자 양성체제의 결여이다. 연구 자료를 비롯한 대중음악과 관련된 저서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 교수 및 강사들의 필수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법 관련 커리큘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글과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음악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타 분야와 비교해서 교수법 관련 수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은 필연적으로 지도자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2. 전문지도자 양성

2.1 조건

전문지도자 양성체제에 대한 연구에 앞서 지도자란 무엇인가 그 조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도자란 사전적 의미로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다.[4] 대중음악 전문 지도자란 대중음악을 전문 분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조언자이자 협력자이며, 전문가이자, 안내자이다.[5] 이들은 교육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전문 지식을 보급하여 또 다른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하게 되고 이는 곧 대중음악계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그러므로 단지 전공 자체에 대한 실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지식, 표현법, 학생과의 심리적 관계, 음악 이론적 지식 등과 같은 음악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초·중·고·대학·대학원·기획사·학원·공공기관 등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개체에게 필요한 교육법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세부적 분야에의 전문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가 본 논문에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조건이다.

2.2 기대효과

전문지도자 양성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로 K-POP의 발전과 세계화에 더욱 지대한 공로를 할 것이다. 한국대중음악이 세계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K-POP의 인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한류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이다. 그 원인으로 K-POP이 신선함과 퍼포먼스 그리고 한국만의 매력으로 해외에 접근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움은 오래가지 못해 식상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도자의 양성을 통하면 기초적, 심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의 창조 가능성을 올리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커리큘럼 상으로는 음악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은 실용음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과목의 형성과 이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발생되어지고 있다.

전문지도자들의 배출은 이러한 현상을 조금씩 개선시켜 미래에는 K-POP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의 실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배우지 못해서 혹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고, 결국 음악의 깊이를 향상시켜 다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보컬, 연주자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및 오프레이터와 같이 음악 전 부분에 있어 능력 증대가 이루어져서 K-POP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둘째로 대중음악계의 안정 및 이미지 격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지도자 층의 탄탄한 기반과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대중음악에서 많은 연구 성과와 개발 등을 통해 대중음악의 안정기 및 정착기를 형성할 수 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기법, 창법 및 이론의 구체화 작업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상향평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지도자 양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수의 인재 양성이 아니라 대중음악계 전체의 발전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은 대중음악의 주요 특징이자 장점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음악이 되어버려서도 아니 된다. 친숙하고 대중적이라는 특징만이 아닌 학문으로써

의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탄탄한 역사 형성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대중음악사는 그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만큼 짧다. 우리의 대중음악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세계적인 문화의 중심으로 단단히 서기 위해서는 기반이 있어야 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과 중요도가 높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적 기반과 연구가 풍부해져서 구체적인 자료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 대중음악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학술 기반 및 연구의 대상자가 바로 전문지도자 층이고 이들의 학문적 지식과 역량에 따라 교육체제의 변화와 이론 형성이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창의적인 형식과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2.3 양성체제 확립

지도자 양성체제의 확립을 열기 전 현재의 지도자 양성체제의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있는 국내 30여개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 2)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10여개 대학음악전공 커리큘럼을 살펴본 결과 전공필수 과목에는 실용음악 관련 과목이 없었으며 전공선택 과목에 실용음악 지도법, 실용음악 반주법등 극소수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 3) 일반 클래식 음악대학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단국대에 공통적으로 피아노과에 피아노 교수법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
- 4) 4년제 실용음악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한양, 경희, 단국, 동덕, 서경 등 5개 대학을 살펴본 결과 교직과정은 없었으며 단국대학교에 문화예술사 교육과정으로 음악교육론과 음악교수 학습 방법이 개설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지도자 양성체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바꿀만한 시스템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필자는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 및 지도자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로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의 경우는 공공 차

원의 기관을 통해서 자격증을 공인화 시켜야만 한다. 현재도 몇몇 사설기관에서 자체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실효성은 없다. 실제로 몇몇 단체에서 실용음악강사 자격증과 같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기는 하나 관공서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요서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음악 전반에 대한 이해는 고사하고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공차원의 자격증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실효성을 발휘시켜 전문지도자의 능력함양과 검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일차적으로는 대학 내의 실용음악과에서 교수법관련 수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우선시되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점이 있다. 대중음악은 앞서 언급했듯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철저히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대중의 음악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의 전공과는 별개로 대중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으나 이런 수요에 비해 공급되어지는 정원은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대학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이외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결국 ‘실용음악 대졸자’ 혹은 일부 ‘대학원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용음악분야를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폭넓고 보편적인 지도자 양성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이다. 요컨대 이 시스템은 실용음악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대학에서 부족한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지도법의 신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지도자 양성성의 파급효과로도 이어져서 결국 학문적, 이론적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전문지도자의 형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K-POP의 발전과 세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것이다. 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음악교사 임용고시와 관련한 내용을 참고하여 실용음악 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음악교사 임용고시의 경우 크게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교사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교사자격기준에서는 교직이해, 학습복지, 학생이해, 교과,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습지원, 교육 공동체, 교사전문성으로 영역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 요소에서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1과 그림2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표시과목 「음악」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간략화 시켜서 도식화 한 표이다.

Teachers Eligibility Criteria	
Area Category	Subject eligibility criteria
Teachers understand the area	1.Music teachers have a sound personality and ethics, and sense of duty as a teacher jeonsuja culture.
Learning welfare area	2.Music teachers are dedicated to student learning and well-being.
Students understand the area	3.Music students and teachers understand the students' learning musical development • music and related cultural learning environment
Subject areas	4.Music teachers have the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relating to course content and curriculum training.
Curriculum areas	5.Music teachers should understand the music curriculum and reconfigured for educational situation.
Business area	6.Music teacher practice • Effective planning • Organizational music lessons.
Assessment areas	7.Music teachers are reasonable and fair assessment of student learning music
Learning Support Area	8.Music teacher must create an environment and culture that supports learning music-related activities.
Community education area	9.Music teacher must build partnerships with the educational community members.
Teacher professional area	10.Music teacher must constantly strive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Fig. 1. Teachers music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eligibility criteria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ources

Evaluation and assessment area		
Division	Complete basic courses and field	Assessment areas
Curriculum education	Music Education	Music philosophy, Music courses, Music teaching, Music and Evaluation
	Harmonics	Chords, District of species, Sparking voicing, Transpose
Curriculum Information	Counterpoint	Classification counterpoint, Musical composition analysis
	Music formalism	Type of music, Homoponi form polyphony form, Playing form
	Composition	Melody Creation, Korea fork Creation
	Western music history	Age-specific music form, Composition and work
	Introduction to Korea Fork Music	Basic theory,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Korea Fork Music Practice	Vocal Music, Instrumental Music
	Command	Music interpretation, Rhythm fling
	Korea Fora Music History	Music form, Peopele, History
	Jangoo play method	Basic Way to Play
	Piano play method	Piano harmonics

Fig. 2. Evaluation and assessment elements of the area music teachers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ources

교사 자격 기준의 경우는 세부자격기준 및 일반기준과의 관련성 부분을 본 논문의 필요에 의해 누락시켰고,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의 경우에는 평가 내용 요소 및 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성 부분이 본 논문에서는 필요성이 적어 제외시키고 작성했다. 교사 자격 기준을 근거로 작성한 이 평가표를 기초로 하여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의 기준을 어느 정도 확립해야 한다.

교과 교육학의 영역은 평가 영역 면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교과 내용학의 영역에서의 수정이 요구되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세부적이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우선 제외 시켜야 할 기본 이수과목 및 분야를 선정해 보았다. 그 결과 대위법, 음악형식론, 국악실기, 지휘, 장구반주법이 이에 해당되었다. 대위법이나 음악형식론과 같은 영역은 대중음악에서 깊이 배우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라 여겨 제외시켰다. 국악 실기나 장구 반주법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여겨 제외시켰다. 또한 지휘도 마찬가지로 클래식에 해당되고 대중음악교육자는 이수하고 평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남겨진 영역에 대한 수정사항과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성법은 기초화성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야만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가르치는 데 용이할 것이다. 작곡은 화성법의 연결선상에서 구분해야 하며, 평가 영역에 선율 창작과 국악 창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평가 영역에 대한 수정이 앞으로 필요하다. 서양음악사는 영역을 확장시켜 음악사로 개칭하고 대중음악사와 기초서양음악의 이해로 나누어 평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전음악에서 음악의 갈래가 시작되므로 서양음악의 기초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악개론이나 한국음악사의 경우, 혹자는 굳이 이 과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음악이 세계화되어 멀리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지도자층의 관심과 노력은 퓨전음악으로의 발전 통로를 더 넓게 열어 줄 가능성을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피아노 반주법은 실용음악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여겨지고 다양한 필요를 지닌다.

악기나 보컬 등의 기본적인 반주를 통해서 학생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통한 밀착형 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재즈의 기본 이론을 더해준다면 클래식부터 국악, 재즈에 걸친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대중음악 교육자가 양성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림3은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평가 영역의 예시 표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전공 실기와 즉흥 연주와 같은 전공 능력 평가가 추가적으로 따로 더해져 실시된다면 전체적으로 강사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져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추가할 사항 및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위와 같이 어느 정도의 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Evaluation and assessment component area		
Division	Complete basic courses and field	Additional evaluation area
Curriculum Education	Music Education	Major Teaching
Curriculum Information	Harmonics	Based jazz harmonics and harmonics region
	Composition	Modifications to the evaluation area and additional requirements
	Music History	Understanding the basis of Western music, popular music history
	Korea folk music History	Modifications to the evaluation area and additional requirements
	Korea Folk Music History	Music form, people, History
	Piano play method	Evaluated to the practical how to play music
Computer music	Modifications to the evaluation area and additional requirements	

Fig. 3. Popular music educator evaluation of the assessment and certification exam area elements -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sources

필자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최적의 선택이면서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지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공공자격증의 설립이다. 하지만 현재 당장 현실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민간자격증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몇몇 사설 기관에서 실용음악분야 관련 자격증을 개설하고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게 부족하고 교육이 정확한 커리큘럼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발급되는 자격증이어서 능력 있는 전문지도자 양성에 그 목적이 있기 보다는 방과 후 강사나 지역 주민 센터 등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적 수단 에 가깝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실용음악계 저명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민간기관을 만들어 자격증을 발급하여 천천히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지도자 양성의 방법이다.

두 번째는 기관의 설립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기관의 기준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바탕이 되어 효과적으로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으며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을 만큼 기관의 수준이 되는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처럼 교육계의 전문가들과 실용음악계에서 저명하고 명망 높은 교수 및 지도자들로 기관의 위원 및 관계자들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기관 자체의 신뢰도도 상승하고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의 수준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초기 설립 단계에서의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의 참여도도 예상 수치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의 설립은 그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일단, 실용음악교육을 전문으로만 하는 기관이 전무한 시점에서 저명 교수들과 연주자 및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연구기관의 설립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의 교육시스템, 그리고 대학원의 커리큘럼 변화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제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사실상 활동할 수 있던 영역이 적었던 실용음악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기관의 등장은 곧 수많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음악 종사자들에게도 기관의 설립은 그 등장만으로도 대중음악교육시장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기관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실효성 있는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을 만들고 교육하며, 배출해냄으로써 교수법에 대한 보편적 이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지도자들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 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을 비롯해서 학원, 대학 등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에 걸친 교육계나 음악 관련 직종과 연계될 수만 있다면 능력 있는 전문지도자 및 전문가의 보급은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으로 대중음악분야 취업을 향상에 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결론

실용음악 교육 분야는 아직까지도 미개척 분야로 인식되고 남아있다. 공교육의 부재로 인해 사교육 중심으로 돌아가며, 강사의 능력 평가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때문에 필자는 실용음악교육 관련 자격증과 그에 따른 기관의 설립으로 대중음악교육의 기둥이 될 지도자를 양성하고 체제 확립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기관이나 자격증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어떠한 방

식으로 취득해야 하는지, 기관의 설립 과정은 어떠한지 혹은 구성원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많은 대중음악 종사자 및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킴으로써 한시라도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자격증의 경우 공공자격증화가 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현재 실정에 맞게 우선 민간 자격증부터 활성화시켜서 점차적으로 실효성을 발휘시키고 자격증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관의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대중음악 지도자 양성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와 관심 그리고 노력은 단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대중음악계 전체의 발전과 세계화의 밑거름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References

- [1] S. H. Kim, Explosive increase of vocal academies - Because of fever to audition, *Kukminilbo*, 2012.09.16.19:53
- [2] Naver term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5318&cid=46662&categoryId=46662>
- [3] Naver search,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y_top&where=nexearch&oquery=Popular Music&ie=utf8&query=Arts high school 2016.10.08.
- [4] Naver terms,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594100>
- [5] H. S. Lee, Approaching to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Sekwang music publishing company*, 1990.

조 승 현(Seung-Hyun Cho)

[준회원]



- 2013년 6월 : 세종음악콩쿨 클라리넷부문 1등 수상
- 2013년 7월 : 제26회 국제학생콩쿨 클라리넷부문 1등
- 2014년 11월 : 2014추계예술대회 최우수논문상수상 KAIS
- 2016년 00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관심분야>

Economic, K-pop, Music Business, Vocal